

특집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How Does a Society Cope with COVID-19 Pandemic?:
Observing the Possibility of Society and Changes of Social Systems

박순열**

이 글은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루만의 체계 이론을 활용하여 탐색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로 구성된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사회-환경 도식에 의해서 분석되고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환경 도식은 기능분화된 현대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태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 글에서 사회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는 그것의 환경과 작동적으로 구분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 자기준거적으로 재생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은 전체 사회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회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고유한 작동들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리스크 결정과 K-방역에 대한 분석은, 전체 사회의 이름으로 요청되고 행해지는 결정과 대처는 불가능하고, 사회적 체계들이 위험과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의 작동들을 고관시킬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에 대한 최선의 대처는 기능분화된 사회적 체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의 맹점은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주요어: 체계이론, 사회체계, 커뮤니케이션, 사회-환경, 코로나-19, 리스크, K방역, 니클라스 루만

* 이 논문은 2020년도 재단법인 숲과나무의 포럼 생명자유공동체를 통해 수행된 연구임. 논문은 포럼 생명자유공동체에서 발표(2020.6.29)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포럼과 ‘환경사회학연구회’ 세미나의 여러 선생님들의 논평에 감사드린다.

** (주)이너시티 도시재생연구소 소장(ecosoon@gmail.com)

1. 코로나-19에 대한 관찰¹⁾

몇 달 전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태들, 수십만 명이 속절 없이 죽어가고, 학교가 문을 닫고, 거의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수억 명이 실직되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서야 마주하는 그런 사태들이 끝없이 연속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다. 대유행의 지표들은 여러 웹사이트 등에서 매순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존스홉킨스대학의 웹페이지는 암울한 위기상황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거기에서는 확진자수와 세계지도 등을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 등으로 보여준다. 세계의 종말과 관련된 묵시록은 언제부터인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지와 숫자의 형태로 먼저 다가오고 있다.

2020년 8월 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800만 명, 사망자는 70만 명을 넘었다. 그 수치들은 지도와 그래프 등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구분은 국가이다. 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지겠지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에는 환자 현황, 시도별 환자 등을 확진환자, 완치, 치료 중, 사망자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²⁾ 대유행을 분류하고 드러내는 숫자와 그래프 등은 해당 기관, 국가, 조직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무엇을 더 중요한 범주로 보는가를 드러낸다. 그런 차이들에도 숫자와 그래프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숫자와 그래프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친구·동료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코로나-19로 어떤 고통 속에 있다가 얼마나 속절없이 죽어갔는지

1) 관찰(觀察)은 사전에 따르면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봄”을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렇다면 ‘주의해서 자세히 살펴봄’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무표(unmarked)의 많은 것들 가운데 특정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가능하다. 관찰은 “하나의 구별을 다른 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을 지칭하기 위해 다루는 것”으로서, 이 글에서 관찰은 의식체계와 사회적 체계가 수행한다(루만, 2014b: 185-195).

2)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바이러스센터 웹사이트,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웹사이트 참조.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고통을 담기 위해 숫자가 꺾을 홀리거나, 그래프가 비명을 지르게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태를 포착하는 숫자, 그래프 등의 연쇄는 직접적인 감염병(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인력, 병상, 마스크 수급 등의 지표와 더불어 실직자 수, 경제성장율, 주식시세, 환율, 온라인 시장 점유율, 재난지원금, 대통령의 지지율 등으로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 그런 건조한 숫자와 지표 등은 사람들의 고단함, 헌신, 좌절 등에 관한 글, 사진, 영상 등과 더불어 나타나면서 의미가 풍부해진다. 이 모든 숫자, 그래프, 사진, 글, 동영상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직면한 사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기술(記述)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찰과 기술을 다시 관찰(이차관찰)하고 다시 기술(이차기술)한 것이다. 이런 재현들의 쇄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없다. 시간과 매체가 제한되어 있고, 더욱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거나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에 관한 지표, 이야기, 그림 등은 구별되어 선택된 것, 즉 선별된 것만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나머지는 남겨진다. 그래서 무엇이 선별되고 있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되는가, 그런 선별의 효과는 무엇인가, 누가 선별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진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선별된 숫자, 그래프, 영상, 이미지, 문자들의 연쇄를 통해서만 감염병의 추이를 관찰하고 사회적 대처에 대해 논할 수 있다. 그런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구별을 수행하고, 언론이나 (사회의) 학문은 사람들이 수행한 구별을 다시 구별하는 이차관찰을 수행한다. 그 모든 구별, 구별된 이쪽과 구별되지 않은 저쪽에 대한 관찰·기술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사회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받고, 헌신하고, 견디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³⁾ 그들의 땀, 고통, 헌신도 아니다. [사회는 그것들에 대한 관찰과 기술의 커뮤니케이

3) 이 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나 '사람들의 관계로서의 사회'와 구분하여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의 사회'를 강조하는 경우에 [사회]로 표기한다.

선 체계이다.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서둘러 답하자면, [사회]는 코로나-19에 위협받지 않는다. 통상적인 의미의 사회, 즉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는 코로나-19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2장). 그런 사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사회]는 환경과 작동적으로 구분되는 자기준거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이다(3장). 그런 [사회]에서는 전체로서의 사회가 아니라 기능분화된 사회의 부분체계들과 사회적 조직들에 의해서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4장). 우리는 위험·리스크 결정(5장)과 ‘K-방역’에 대한 관찰(6장)을 통해 [사회]에 대한 관찰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2. 사회를 부르는 코로나-19

사람들의 삶은 일련의 구별과 재현을 통해서만 사회조직,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활동, 정치활동 등에서의 정상성(normality)으로 포착되거나, 포착되지 않고 그 시점에서는 남겨진다.⁴⁾ 코로나-19는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의 정상성, 그 정상성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정상성(new normal)에 관한 논의를 촉발했다. 무엇이 코로나 이전의 정상성이었는가? 손쉬운 답변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회적 관계, 제도, 관행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성은 흔히 과거에 있었다고 주장되는 어떤 것, 또는 현 시점에서 다시 복원되어야 하는 과거의 어떤 것을 지시하는 형태를 띤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소환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어떤 상태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상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4)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은 그것으로 특징지어진 대상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는 사태가 아니다. 정상은 흔히 당연한 것, 적절한 것 또는 인간 행위의 규칙성 및 반복성과 연관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집단의 특정한 인식의 산물이다(김광기, 2008: 287-297).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바람직한 미래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관찰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위기 대처를 명분으로 위로부터의 또는 사회 전체의 신속한 결정과 그것을 위한 선별과 배제의 불가피성이 강조되기 십상이다. 문제는 사회의 신속하고 일반적인 결정에 대한 통상적인 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현재-미래-과거와 연관된 상식적인 접근이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속한 결정에 따른 사회적 대처는 사회 집단별로 불균등하고 불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결정은 사회나 국가발전 등을 명분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 사회적 약자, 생물학적 약자 등의 희생과 피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공통의 사회가 저기 있고, 그런 사회를 지켜야 하고, 그렇게 지켜낸 사회가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정당화되지 않은 유사-공리주의적 믿음에 근거한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통의 사회 같은 것이 있다는 인식에 의해 유지된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회가 있기에, 사회의 저편에 사회와 구별되는 환경이나 자연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생태적인 위험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회', 그 '사회 저편에 있는 환경'이라는 독특한 사회-환경 도식에 근거해서 분석되고 대안이 모색된다.

우리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는 사회에 대한 상상 때문에, 사회의 위로부터의 일반화된 결정과 책임은 요구되고 또 정당화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시기에는 사회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것, 정부, 국가, 대통령 등의 이름으로 사회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일반화된 결정, 위협이나 리스크를 제거하여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사회의 이름으로 더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 정말 있는 것인가? 환경으로부터 구분되는 사회, 사회와 구분되어 있는 환경, 사회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이끄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회의 초월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

와 연관된 이 사태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회의 대처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적절한 것인가?)

코로나-19로 속절없이 죽어간 사람들, 피할 수도 있었는데 고통 받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로서, 가족으로서, 의료진으로서, 일상의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가 위로부터 또는 통합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그럴 수 있는지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사려깊은' 시민, 다른 시민들이 거리두기 또는 비대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밀접

-
- 5) 이 글에서 제기하는 '사회의 가능성'은 공동체가 아닌 '개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영국 대처(M. Thatcher) 수상의 "그런 사회는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society)"의 반복인가라는 의문과 연결될 수 있다. 사실 대처의 그 유명한 문구는 정확한 맥락이 결여된 채로 자주 인용되면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 발언의 맥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또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노숙자입니다. 정부는 거처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누가 사회입니까? 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살피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https://www.spectator.co.uk/article/-no-such-thing-as-society-what-it-means-for-today-s-welfare-debate>). …… (이후의 인터뷰에서 대처는) 내가 의미한 바는, 당시에는 분명했지만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 왜곡되었는데,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남자와 여자로부터 분리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가족들, 이웃들과 자발적인 결사체들의 살아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https://www.lancaster.ac.uk/staff/ecagr/MT.htm>). 위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대처가 주장하는 '그런 사회'는 개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개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알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회, 그런 정부가 없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사회, 즉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로 구성된 사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 대처의 주장과 대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남자, 여자, 결사체 등의 관계로 구성된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즉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차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남자, 여자,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국가와 같은 것들 간의 '관계'와 '본질'에 대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이 글에서 [사회]는 남자, 여자, 가족, 이웃, 그들의 관계 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준거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일 뿐이다.

축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시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등의 덕분으로 'K-방역'의 성공이 이야기된다. 그들의 사려 깊음과 헌신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더 이상 사려 깊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신이 '덕분에'에 의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경솔해지거나 감염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사회는 그들에 의해 다시 오염되고 위험에 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회는 도대체 무엇인가로 향한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태에서 재발견되고 강조되는 사회를 보고 듣고 경험한다. 시장보다는 국가, 국가의 효능감이라는 낯선 이야기도 듣는다. 우리 앞에 더 이상 '선진국'은 없고,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라는 20세기에나 어울릴 국가발전 담론도 회자된다. 그리고 그 다른 편에 환경·자연에 대한 호소가 자리한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구분되어, 저기 어딘가에 '약탈적'인 자본주의나 '무분별한' 사람들로부터 (바이러스를 품은) 환경이나 자연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코로나-19를 '자연의 복수'라거나, 맑아진 대기나 도심에 출현한 야생동물을 '자연의 복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회, 국가에 대한 재발견이나 환경보전, 자연의 복원은 코로나-19가 연결하는 전혀 다른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이야기는 사회·환경 관계에 대한 독특한 가정의 서로 다른 면이다.

이것은 자연·환경과 인류·사회 등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고, 자연이나 환경의 본래적인 어떤 것이 파괴되었거나 회복되었다라는 독특한 존재론과 인식론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과 사회의 존재론적 구분은 인간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환경과 사회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던 때에나 부분적으로 유효했고, 또 그런 인간 활동의 인지적 산물인 '넓은 유럽식 존재론'이다.⁶⁾ 코로나-19는 이미/언제나

6) '넓은 유럽식' 또는 '구유럽적'이라는 표현은 니콜라스 루만(N. Luhmann)이 어떤 특정한

우리와 함께 있는, 그래서 인간·사회로부터 분리 불가능한 바이러스, 세균, 동물들의 존재를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알려준다.⁷⁾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환경)사회(과)학자들은 여전히 환경과 사회의 존재론적 구분을 받아들인다. 인간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을 지구에서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 인간 활동으로 지구시스템의 균열이 제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⁸⁾ 여전히 환경-사회, 자연-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구분에 기초해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태를 관찰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그 유효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구분된 사회-환경이 아니라 작동적으로 구분되는 [사회]-환경의 틀에서 코로나-19와 [사회]를 관찰하는 것이 필

견해가 낡아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을 드러낼 때 즐겨 사용했다. 어떤 관찰자가 존재/비존재라는 구분으로 자신이 중요한 것, 연결 능력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존재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존재자는 언제나 사전에 전제되어 있는 고유한 성질, 작용, 동일성 등을 지시한다. 객체, 자연 등이 사전에 주어지고, 주체가 그런 객체를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헬가그립-하겔슈탕에, 2016: 25-42).

- 7) 마굴리스와 세이건(2018)은 모든 생명은 세균의 자손이거나 세균이 합병된 것이라고 본다. 생명은 끊임없는 생명활동과 물질대사인 자기생산적 활동을 하는 한에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살아 있다(p.35). 인간과 같은 다세포생물은 보다 큰 전체를 이루는 작은 생물들의 공존인 홀로키(holarchy)구조인데 (p.37), 만약 인간이 살아서 우주를 여행하려면 그들을 먹여살리는 식물, 소화를 돕는 세균, 노폐물을 재순환시키는 균류 등 미생물과, 이 모든 활동을 지원해 주는 기술이 필요하다(p.322). 따라서 살아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미 분리 불가능한 자연이나 환경 심지어 기술과 함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인간, 그런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 사회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외부의 환경을 가정하고, 그 논리적 귀결로 외부환경의 보존이나 환경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한다.
- 8) 해밀턴은 지구시스템에 대한 인류의 교란과 변동을 인류세로 정의한다. 그에게 지구시스템은 지구라는 행성을 단순한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복잡하게 진화하는 단일한 시스템으로서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지권을 아우르는 권역들의 공진화에 기반한다(해밀턴, 2018). 책의 영어본 제목은 *Defiant Earth: The Fate of Humans in the Anthropocene*으로 '저항 또는 반항하는 지구: 인류세에서의 인간의 운명'이다. 따라서 인류세라는 문제들은 '자기조직하고 재생산하는 체계로서의 지구'의 작동에 균열과 변동을 가한 인간이, 그 균열과 변동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요하다. 모든 생명들이 자유로운 공동체는 사려 깊은 시민들에게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 [사회]-환경의 작동에 대한 보다 새롭고 치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사회]로 향하는 가파른 길: 체계, 관찰, 커뮤니케이션

작동적으로 구분되는 [사회]-환경의 틀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가 아닌 가파른 길 어딘가에 있을 낯선 [사회]로 향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사회]는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의 [사회]는 주류 사회학이나 일상용법의 사회(사람들의 집합 또는/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α)와 다르다. [사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⁹⁾ 사회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상호작용 역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¹⁰⁾ 사람은 [사회]의 밖에 존재한다. 사람이 [사회] 밖에 존재한다는

9) 대표적인 사회학 개론서인 기든스와 서튼(2018)의 『현대사회학』에서 사회학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집단, 전체 사회와 인류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하는 학문(p. 26)이라고 정의된다. 기든스와 서튼은 사회는 “일반적으로 언어, 가치와 행동의 기초적 규범들과 같은 공통의 문화적 양상들을 공유하는 구획화된 영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 사회, 덴마크사회 혹은 아르헨티나 사회와 같은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사회는 제도들(특정 종류의 정부, 교육체계, 가족유형과 같은)과 그들 간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관계들을 포함한다”(p.30, 밑줄은 필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학에서의 사회는 사람, 제도들, 제도들의 안정된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 제도/관계는 질적으로 아주 다름에도 사회학의 대상으로 그냥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사회적 체계의 구성요소인 상호작용, 조직,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소리, 음성언어, 문자언어, 인쇄술의 발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과 함께 분화했다. 상호작용은 참석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형성되는 사회체계로서,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참석/불참석의 구별이 중요하다. 상호작용이 다른 사회적 체계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인지(대면적 상호작용만이 주는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가 언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조직은 어떤 사람이 결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되며, 다시 하고

것은 사회체계와 환경의 차이에서 사회를 보았을 때, 사람은 이론적으로 [사회] 바깥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소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는 다르다(루만, 2015: 87).

사람들의 삶과 생명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사회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사회를 사회적 행위자를 중심에 놓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합리적 인간'을 강조하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흐름들이 합리적 '인간'을 강조하는 만큼 사람들의 삶이나 사회가 좋아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사회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논의, 사회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 [사회]가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누군가 이발을 한다면 그는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이 되고,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한국 [사회]의 대략 5000만 분의 1을 감염시키는 것이 된다. 우리가 [사회]를 지키려면 이발을 하거나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이 반사회적이라거나 사회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 사람들의 관계로서 사회를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누군가와 또는 어떤 단체나 조직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 나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나 조직과의 관계는 단절하는 것은 사회를 그만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귀결에 이르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사회]에서 사람 즉, 개별 인간은 자기생산적이며 고유한 동학을 갖추고 있는 단순하지 않은 체계들의 혼합체이다. 인간의 육체는 생물학적 체계이며, 그의 의식은 심리체계이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인

나 탈퇴를 통해서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구성원/비구성원 구별을 통해 분화독립화되는 사회적 체계이다. 어려운 사회의 기능체계와 조직 간의 관계인데, 가령 정치체계와 정당, 교육체계와 학교기관, 또는 경제체계의 특정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루만은 사회의 기능체계들은 배제의 기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배제를 수행하는 조직에 의존한다고 본다. 정치조직, 교회조직, 생산조직, 학교기관, 연구조직은 기능체계 안에서 행동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기능체계는 항상 조직에서부터 배제되었지만 기능체계 안에 자리하고 있는 소비자, 의뢰인과 같은 인격체의 영역을 갖고 있다. 사회는 체계들의 두 유형, 기능체계와 사회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포함과 배제의 차이를 갖는 동시에 갖지 않는 특이성을 성립시킨다는 것이다(루만, 2015: 385-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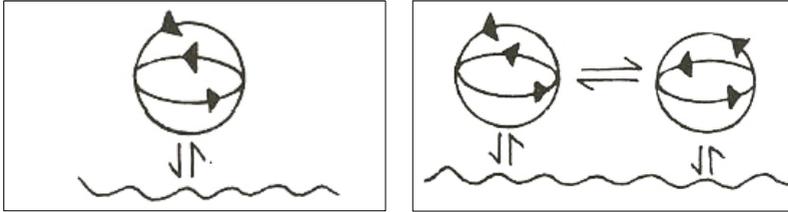
〈그림 1〉 체계들의 분류



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살아 있는 인간은 [사회]의 전제에 속하지만, 정의상 사회에 속하지는 않는다(베르크하우스, 2012: 44-45).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의 [사회]는 사물로서의 체계가 아니라 작동으로서의 체계이다. 작동은 체계의 본질적 활동으로서 체계가 자신을 생산하고 재생산할 때 취하는 활동이다. 작동적 체계로는 생물학적 체계인 유기체, 심리적 체계, 사회적 체계가 존재한다. 각각의 체계는 생명, 의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동한다. 작동은 체계가 환경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기생산하는 것이다. 체계가 자기 생산적이며, 자기준거적이며, 작동상 폐쇄적이라는 것은 흔히 정밀한 체계로 알려진 시계와 비교해 보면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계는 시계공이 만들기에 자기생산적이지 않고, 시계의 규칙체계는 시계 밖에서 오기에 자기준거적이지 않다. 시계에 비해 자기생산체계는 자신을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모든 체계유형은 환경과의 차이에서 자기생산의 고유한 작동방식을 갖는다. 체계와 환경이 존재론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하는 세계인 무정형의 세상에서 체계 스스로 분화독립하면서, 체계는 자신의 경계 저편에 있는 것으로서 환경을 구성한다. 따라서 저기 어딘가에 환경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체계마다 하나씩, 체계 스스로에 의해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나 인류가 환경에 진입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체계이기에 환경을 파괴하거나 보존하는 작동을 할 수 없고, 인류는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생물학적 체계와 심리적 체계의 혼합인 사람은 행동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각각의 고유한 환경을 갖고 있다. 전체로서의 인류가 동일한 환경을 갖는 것

〈그림 2〉 유기체들의 구조적 연결



출처: 마뚜라나와 바렐라(2007: 203)

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환경은 어떤 고유 체계나 작용단위가 아니다. 환경은 어떤 외부적 상황의 총체성으로서 체계의 형태생성의 임의성을 제한하고, 그것을 진화적 선택에 내맡기는 어떤 것이다(루만, 2014a: 19).

작동으로서의 체계는 체계를 부분이나 요소로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체계의 경계가 아니라 체계 내부에 집중하는 기존의 체계이론과는 다르다. 환경은 체계의 외부면으로서 오로지 체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환경에는 또 다른 체계들이 포함될 수 있기에 개별 체계의 관점에서 체계의 환경은 늘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환경은 체계의 자기생산의 전제조건이다. 환경은 체계의 존재조건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생물학적 체계들은 산소, 물, 영양분 등을 필요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사회체계는 생명과 의식을 지닌 살아 있는 인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체계는 인과적으로 그것의 환경과 연결되어 있기에 환경개방적이고, 환경에 의존한다. 그러나 동시에 체계는 작동상 폐쇄적이다. 환경의 끊임없는 교란(상호영향과 효과)에 대해 체계는 오로지 자기폐쇄적이고 자기준거적인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체계 스스로 그럴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베르크하우스, 2012: 51-82).

체계와 환경의 작동은 마뚜라나와 바렐라가 신경계를 가진 유기체가 환경, 그리고 다른 유기체와 구조적으로 연결될 때의 상호작용과 유기체의 작동을 표현한 〈그림 2〉에 잘 드러난다. 유기체의 환경은 유기체의 자기생성 구조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것의 형태나 양상을 결정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 유기체, 특히 유기체의 신경계는 고도의 작동적 폐쇄성을 갖고, 다른 유기체도 환경의 하나로 받아들일 뿐이다. 물론 동종의 유기체들에 보다 민감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관찰은 체계 작동의 하위형식으로 구별과 지칭으로 이루어진다. 작동뿐만 아니라 자기자신과 다른 모든 것의 구별은 모든 체계에서 발생한다. 사람의 의식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체계도 관찰한다. 세계는 무한히 많은 구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것이 관찰되는가는 세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인 체계에 달려 있다. 누구도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없기에, 항상 어떤 것만을 볼 수 있다는 하나의 체계 의존적 맹점을 가진다. 모든 것을 개괄할 수 있는 마지막 심급, 최종적 권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세계기술은 다른 관찰자에 의한 끊임없는 교정가능성과 비판 가능성을 지닌다.

식물과 동물의 세계가 엄청난 다양성을 가짐에도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의 분화까지의 모든 것이 생명에 기초를 둔 것처럼, 현재에 이르는 유구한 인류의 사회적 다양성과 분화는 오직 하나의 과정인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했다(베르크하우스, 2012: 102). [사회]의 모든 형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작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작동하면 언제나 사회적 체계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단독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커뮤니케이션과의 연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중단만이 [사회]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사회]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중단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발생할 수 없다.

사회적 체계는 [사회], 조직,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체계가 [사회]이다. [사회]의 경계는 영토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경계이다. 사실 커뮤니케이션만이 순수한 사회적 작동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의식체계가 동시에 현존하고 또한 함께 작동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루만, 2014b: 380).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저기 정보가 있고,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누군가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¹¹⁾커뮤니케이션의 정보는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사물이거나 누

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는 무한히 풍요로운 재료로 가득 차 있지만 오로지 관찰자의 선별에 의해서 어떤 것들만 정보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보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체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만, 정보가 순수한 체계의 발명물은 아니다. 세계가 어떤 것을 잠재적으로 실제로 포함하고 있어야한다(베르크하우스, 2012: 109-121).

루만에게 커뮤니케이션은 세 가지의 선별인 정보, 통보, 이해의 결합이다. 선별은 서로 다른 가능성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으로서, 항상 다르게도 가능했다는 의미에서 우연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최소 두 개의 정보가공자(타자-자아)를 전제로 한다. 타자가 정보를 선별하고, 통보를 선별한다. 자이는 선별된 정보/통보를 수용하거나 이행하는 선별을 수행한다. 우리는 세 동작을 관찰기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동일성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의 최종요소이고 [사회]의 기본작동이다. 무엇이(통보의 내용, 의미), 어떻게(매체와 형식)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나고, 자아가 그것을 이해한 순간에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은 성립한다. 자아의 이해는 통보가 통보로서, 즉 의도된 것으로 이해된 것을 의미한다. 즉 타자의 통보를 소음이나 우연한 행동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고, 통보와 정보가 구별되고, 그 구별이 이해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타자와 자아가 어떤 정보,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울 뿐이다. 소통은 정보의 선별, 통보의 선별, 이해의 선별을 거치는데, 그것은 모두 선별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우연의 연속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베르크하우스, 2012: 135-136).

11)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는 아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소통을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학자다. …… 지역과 언어를 떠나 소통의 목적은 동일하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세상의 이해를 돕고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밑줄은 필자 강조) (《오마이뉴스》(2020.6.10). 강인규. 코로나 이후의 삶은 ‘언택트’? 우리가 모르는 진실 [비대면 경제의 허상과 현실 ①] ‘비대면 산업 강화’ 담론은 어떻게 현실을 외면하는가“

4.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단순하고 소박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의 [사회]는 외부 환경의 복잡성을 처리하기 위해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하위체계들로 지속적으로 분화했다. 정치체계, 교육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은 모두 고유한 기능체계라는 점에서 등가적이고, 다른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상호의존적이다. “사회의 진화는 많은 장소에서 그냥 발생할 뿐이다. 그것은 결코 조종되지 않는다. 사회는 사회의 진화와 부분체계의 진화가 공동진화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이한 기능체계들은 상이한 도덕들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그 도덕들을 하나의 사회도덕으로 통합될 수 없다. 선한 것과 옳은 것의 상위의 전체공식은 없다. 핵심기관, 조정중심은 없다.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좋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회의 핵심 대행자는 없다”(베르크하우스, 2012: 417).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초월적인 사회나, 가장 중요한 부분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기능체계들은 다른 기능체계들의 작동을 전제로 고유의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할 뿐이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태에 대한 사회적 대처를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사회]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 또 세계시민주의적 전망에서 생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모두 구현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의식, 자질, 헌신에 대한 도덕적 호소나 비난을 통해서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초월적 체계나 권위 있는 부분체계에 의해서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²⁾ 우리는 [사회]의 어떤 부분체계나 사회조직들에게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 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은 그런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의 “새로운 질서에서는 자연적인 우위도, 사회적 체계로부터 나온 특권적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

12) 민주적, 생태적, 세계시민주의 시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순열(2019) 참조.

라서 사회체계의 통일성을 자기 환경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체계 내에서의 어떠한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루만, 2014a: 180). 체계통일성이나 대표성을 부분체계가 시도하는 순간, 사회조직들과 기능체계들은 교란되거나 와해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들, 다가올 새로운 문제들을 오로지 부분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고유한 기능분화적 작동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사회] 외부의 생태적 위험은 전체 [사회]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기능적 분화를 통해서만 처리된다. 불가능한 도덕적 헌신이나 무책임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체계들, 사회조직들이 새로운 복잡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작동을 관찰하고, 작동의 맹점 또한 관찰하는 것이다.

사실 사회의 부분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에 의한 교란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환경사회(과)학의 주도적인 영역이었다. 환경사회(과)학은 오랫동안 사회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사회의 분화와 변화를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사회는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이거나, 환경·자연·사회의 차이와 그 관계 등에 대한 규정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것이었다. 결정적으로는 [사회]가 어떻게 작동적으로 폐쇄적이면서도 자신의 환경과 인과적으로 개방적인지를 포착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 때문에 최근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생태적 위험에 대한 사회(과)학의 분석은 막다른 길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어떻게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외부의 교란을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과거의 복원, 단순한 사회로의 복귀, 도덕적 호소 등에 의해서 답해질 수 없다. [사회]는 해당 교란에 대응하는 새로운 부분체계나 기능체계로 분화하거나, 기존의 사회적 체계들이 각각의 주도적인 작동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체계들의 작동은 그것의 기능, 기능을 위한 작동방식 즉 코드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만 보다 분명하게 관찰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기능분화된 사회적 체계들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결과물이다. 대표적인 기능체계인 경제체계, 정치체계, 친밀체계, 학문체계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체계는 고유한 문제-기

〈표 2〉 근대사회의 문제와 기능체계들

문제-기능	기능체계	매체	코드	프로그램
희소자원분배	경제체계	화폐	지불/비지불	희소성, 가격
집합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	정치체계	권력	권력 있음/권력 없음 여당/야당	정치사상 선거공약
인격적 인정	친밀성체계	사랑	사랑/사랑하지 않음	열정적 사랑
삶의 지향	학문체계	진리	진리/비진리	이론, 방법론

출처: 이철(2017: 191)

능(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설정)을 갖고, 해당 체계에게 고유한 매체, 코드, 프로그램을 갖는다. 매체는 세계와 체계들 사이에서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의 느슨한 연동을 의미한다.

가령, 친밀성 체계가 근대의 기능체계라는 것은 권력이나 돈으로 사랑을 얻을 수 없으며 사랑이 결혼의 전제조건이 되는 근대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이철, 2017: 191). 친밀성 체계는 다른 체계에는 관찰될 수 없는 고유한 매체, 즉 사랑이 있다. 그리고 이 체계의 작동은 사랑-사랑하지 않음의 코드에 의해서, 그것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열정적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 물론 열정적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은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가령 가족 내에서의 안정적 사랑 등으로 대체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기능체계가 기능적으로 등가적이라는 것이 모든 기능체계가 고유한 자기준거적 작동에 의해서 완벽하게 작동하거나,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조직들간에 완벽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령 친밀성 체계의 사랑은 빈번하게 권력, 화폐, 진리 등에 위협받거나 섞이고, 가족은 다른 체계의 매체, 코드에 의해 침식되고 다른 조직의 위협에 노출된다. 그럼에도 기능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자기준거적 작동은 바로 그 체계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결정된다. 다른 모든 사회적 조직들과 기능체계들은 여전히 해당 기능체계와 사회조직의 환경이다. 두 사람의 열정적인 사랑이, 그 사랑을 어렵게 하는 권력과 자본에 얼마나 맞설 수 있는지

는 두 사람의 관계에 달려 있지 권력이나 자본에 있지 않는 것처럼, 어떤 체계가 환경의 교란과 소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체계의 폐쇄적 결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 [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가의 대답은 작동적 체계로서의 사회체계들, 사회조직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만 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관찰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체계에 의해서 수행되느냐가 중요하다. 관찰자(체계들)는 각자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관찰하기에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맹점(盲點)을 갖기 때문이다. 이 글도 그런 관찰의 맹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은 2020년 7월 중순에, 환경/사회학자에 의해, 지난 6개월간 발생한 무한한 사건들의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회의 대처에 대한 현재-과거의 관찰을 관찰한 것임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코로나-19 확진자, 현장의 의료진, 병리학자, 관련 부처 공무원, 정치인, 대통령 등과는 다른 관찰을 기술한 것이다.

5. 코로나-19의 위험과 리스크 결정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사람들의 삶, 생명,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사회적인 것, 환경 그리고 행성으로서의 지구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위험(danger)과 리스크(risk)로 등장한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을 실재하는 어떤 것과 관계없는 순수하게 문화적이지 정치적 음모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논외로 한다면, 위험과 리스크의 실재나 사회적 구성의 방식, 과학기술과 위험의 관계, 위험의 편재성, 위험 결정과 피해의 불비례성 등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주도적인 관심은 위험·리스크와 [사회], 또는 사회적 체계들과의 관계이다.

루만은 위험과 리스크를 무엇보다도 의미와 연관된 체계인 사회적 체계의 결정(작동)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위험은 체계 내부가 아닌 외부 환경에서의 교란에 의해 체계가 교란되거나 체계의 존속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반면 리스크는 체계가 미래의 불확정성에 대응해 내린 현재의 결정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이 체계에 되돌아오는 것이다. 리스크는 체계가 미래의 불확정성에 대응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고, 결정의 결과는 온전히 예측할 수 없다. 관건은 미래는 언제나 불확정적이라는 것이고 미래-현재의 차이에 대한 관찰이 증가할수록, 결정에 따른 작동의 변동이 클수록 결정 부담은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결정을 회피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미결정 역시 체계의 또 다른 형태의 결정임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불확실성도 발생시키지 않는 체계의 결정은 존재할 수 없다. 리스크는 의미에 기반을 두고 미래-현재의 차이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체계의 작동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다시 말하자면, 리스크는 미래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체계가 내린 결정의 부정적인 결과를 다시 체계에 재귀적으로(reflective) 귀속시키는 것과 연관되고, 위험은 외부환경이 야기한 손실로서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통제밖에 있는 손실과 연관된다(노진철,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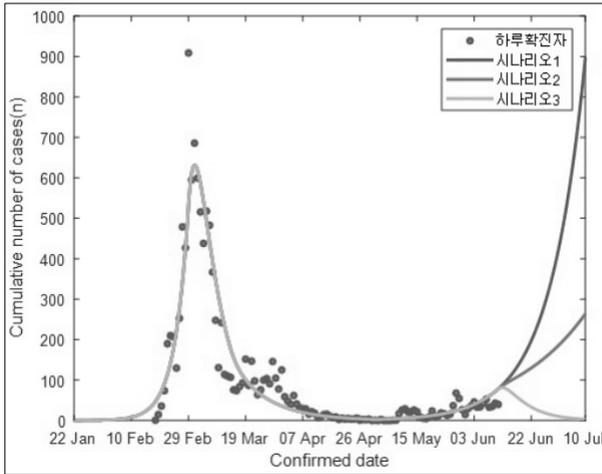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과 리스크를 관찰해 보자. 먼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의식체계)과 [사회]에게 코로나-19는 외부에서 부과된 위험으로 다가온다. 이 위험에 대응하여 불확정적인 미래를 참조하면서 현재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회](의 부분체계와 조직들)의 결정은 리스크가 된다. 결정 당사자인 체계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른 체계들(또 다른 개인, 또 다른 사회의 부분체계와 조직들)에게 바로 앞선 다른 [사회]의 부분체계나 사회적 조직들의 결정은 위험이다. 그러나 복잡하게 분화된 사회에서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수많은 체계들의 리스크 결정은 순식간에 다른 체계들의 리스크 결정과 섞이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위험과 리스크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체계가 작동하는 한 체계는 언제나 다른 체계들이 포함된 외부 환경을 내적인 자기준거에 입각하여 처

리해야 하고, 체계의 작동은 지속적으로 다시 체계로 돌아오는 리스크 결정의 작동방식은 바뀌지 않으며 많은 경우 체계의 결정부담은 점점 커져간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위험결정을 내리는 체계는 전체로서의, 어떤 단일한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정치체계, 경제체계, 교육체계, 법체계 등 [사회]의 부분체계들이거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교회, 기업 등 사회조직들, 그리고 (개인의) 의식체계들이다. 어떤 체계의 연속되는 결정은 해당 체계에게는 리스크로, 결정을 내리지 않은 해당 체계의 환경들, 즉 [사회] 내의 다른 체계들, 조직들, 의식체계들에게는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위협과 리스크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각각의 체계가 내리는 리스크 결정은 적극적인 결정뿐 아니라 비결정도 포함한다. 결정은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는 것인데,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체계 내적인 결정이다. 선택지들 가운데서 결정하지 않는 것 역시 리스크를 생산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일련의 방역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여부, 의료자원의 배분,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이 모든 것의 결정이나 비결정은 그 자체로 리스크를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내리는 어떤 결정이 리스크를 생산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의 작동이 다른 체계들에게 어떤 위협을 야기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체계들에게는 리스크가 어떻게 되돌아오는가, 해당 결정이 체계에 의해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결정인가 등을 질문해야 한다.¹³⁾

13) 익명의 두 심사위원이 본 논문에서 개별 사회조직이나 특정한 사회체계가 코로나-19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앞서서도 논의하였지만, 이 논문은 대부분의 환경/사회과학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론적 사회-환경 도식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능분화된 사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작동적으로 구분되는 사회-환경의 차이와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논의는 주로 가장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인 [사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의 유의미함을 드러내기 위해 리스크 결정과 K-방역을 사례로 살펴보면서 제한적으로 사회적 체계들과 사회적 조직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개별 사회조직이나 사회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그것들의 기능적 작동분화, 코드, 프로그램 등이 코로나-19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그림 3〉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



자료: 《경향신문》(2020.6.12).

〈그림 3〉은 2020년 6월 발표된 ‘COVID-19 국내 확산 모델링’의 일부이다. 연구팀의 모의분석 결과는 재생산지수(R값)가 1.79로 유지될 경우 7월 9일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26명, 거리두기 수준을 강화해 R값을 1.34로 낮춘다면 하루 확진자 수는 254명, R값을 0.86으로 낮춘다면 하루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¹⁴⁾ 7월 9일의 실제 확진자는 전일 대비 50명이 증가했다. 해당 연구의 방법론과 재생산 지수값, 예측환자 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나리오는 미래의 확산추세가 현재의 방역정책에 따라, 즉 사회적 체계의 리스크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중

것의 맹점은 무엇인지는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필자(또는 다른 연구자)가 차후에 개별 사회조직이나 개별 부분체계가, 가령 사회의 부분체계로서 또한 사회조직으로서 사회/환경운동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처하는지, 그것의 작동과 맹점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본다.

14) 《경향신문》(2020.6.12).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면, 7월 하루 800명 확진자 ‘2차 대유행’ 온다” 참조.

요하다. R값을 조정하는 결정은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몇몇 사회적 조직의 결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체계(들)의 결정은 의료보건인력 배치, 의료자원 배분, 학교 수업, 경제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등 거의 모든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시나리오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세 가지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결정마저도 고유한 리스크를 생산한다. 따라서 리스크를 생산하느냐, 생산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리스크가 무엇을(가령, 실업, 불경기 등) 대가로 무엇을(가령, 감염자와 사망자 등) 줄이고자 하는가라는 리스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리스크 결정을 어떤 사회체계에 사회조직이 내리느냐는 리스크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 결정에 합당한 과학기술적, 정책적, 사회경제적 준비와 대처가 되어 있느냐라는 결정 시행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리스크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되느냐라는 등의 질문이 중요할 뿐이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적 체계들은 각자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모든 다른 체계들의 결정은 환경에 속한다. 어떤 부분체계나 사회조직에서의 결정에 다른 사회적 체계들이나 사회조직들이 어떻게 반향(resonance)하느냐는 전적으로 사회적 체계들과 사회적 조직들 내부에서 결정된다.

그럼에도 [사회]의 특정 기능체계에 [사회] 전체를 위한 결정을 요구하거나, [사회]의 위험과 리스크의 확산과 뒤섞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¹⁵⁾ 그런 요구는 정치나 사회운동 등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정치와 사회운동의 고유한 작동의 산물로 관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의 특정 기능체계나 조직에 그런 결정과 책임을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해당 부분체계나 사회조직의 고유한 작동·관찰을 교란시키거나 왜하시킬 뿐이다. 어떤 리스크 결정에

15) 한국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회분화 형식인 분절적 분화나 계층적 분화가 완전히 소멸했다라기 보다는 기능적 분화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이 경향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질서원칙으로서 계층적 분화와 기능적 분화의 경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철(2020) 참조.

대한 인과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귀책논의, 즉 현재에서 문제가 되는 결과를 야기한 원인을 찾는 논의이다.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 사태를 야기한 무수한 인과고리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관찰자(체계)의 관찰과 결정이다.

인과성은 무한히 많은 원인의 쪽과 무한히 많은 결과의 쪽을 갖는다. 사람들은 목적된 결과를 목표로 정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이를 위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원인(수단)을 찾은 다음, 다시 이 원인의 특별한 결과인 비용, 부수 결과 등을 찾는다. 또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있음직한 결과의 원인으로 규정한 다음 어떤 결과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정하기 위해 인과도식의 내적인 경계를 횡단한다(루만, 2018: 30). 사실 인과성과 관련된 귀책논의는 언제나 관찰자가 관련됨에도, 언제나 관찰자를 숨기는 형태로 진행된다. 가령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것과 함께하는 어떤 박쥐, 매개동물, 최초의 인간 감염자, 접촉을 가능하게 하거나 강제한 생산활동, 인구의 증가, 도시의 확장, 자본주의, 지구화,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기후변화, 인류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없는 인과의 연쇄를 나열할 수 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상당시간 머무를 수 있는 지구의 중력과 여전히 태양을 도는 지구의 움직임도 인과적으로 코로나-19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찰자를 숨기고 초월적 위치에서(그런 것은 이제는 불가능함에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인과고리의 범위를 결정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실익은 거의 없고, 기능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작동과 관찰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뿐이다.¹⁶⁾ 오히려 사회이론의 측면에서 중요한 질문은 각각의 사회

16) 인과고리의 범위는 사태(체계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있다는 루만의 주장은 '결합의 사회학'과 비교해 보면 그 존재론적, 인식론적 의의가 보다 분명해진다. 라투르(B. Latour)는 사회는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비인간과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인간만으로 구성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즉 이질적 연결망의 탐구를 강조한다. 가령, 총기살인을 살인의도를 지닌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는 전통적인 접근과 달리 라투르는 총기살인을 총과 사람이 연결된 집합적 행위자

적 체계가 이 새로운 사태를 각각의 자기준거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리스크에 대한 결정(책임)을 어떤 체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각각의 체계들은 위험과 리스크와 관련된 새로운 사태를 어떻게 체계 고유의 방식으로 대응하는가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이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이 가능한 [사회]가 있거나, 어떤 조직이나 부분체계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부분체계나 사회조직이 내린 코로나

인 '총기-사람'이 초래한 것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총은 위험하지만 격분한 사람에게 총이 없었다면 살인은 쉽지 않았기에, 총기와 사람의 공동구성으로 총기살인이 이루어진 것이다(김환석 외, 2020: 16, 25). 그러나 총기살인을 총기-사람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무한한 연쇄의 고리에서 라투르라는 관찰자의 독특한 관찰의 산물이다. 총기살인이 일어나는 '인과적 조건'은 격분한 사람과 총기만이 아니다. 총기는 발사될 수 있을 만큼 누군가에 의해 각종 형질, 오일, 장치 등을 통해 관리되었을 것이고, 발사된 '정상적'인 총알의 원료와 탄피는 채취, 운송, 가공 등에 수없이 많은 인간과 비인간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총을 발사하고 총알이 무리 없이 날아가기에 적합하게 여전히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었고 중력도 어느 때와 같았다는 것이다. 시선을 가릴 만큼의 안개나 비도 없었을 것이고, 총기 발사자는 그 전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수많은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들의 도움으로 음식이나 약물로 확보했을 것이다. 이처럼 총기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비인간 행위자의 연결망은 끝이 없다. 따라서 '총기살인'은 어떤 무정형의 상태에서 관찰자인 라투르가 총기와 사람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하여 결합하고 나머지 것들은 남긴 것이다. '총기-사람'은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되기를 저기에서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라투르의 관찰은 총기살인에 대한 유일한 또는 가장 정확한 관찰도 아니다. 사실 라투르의 논의에서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사회가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비인간과 함께 구성된 것이라는 사회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접근인데, 이런 접근은 사회 또는 사회적 행위가 가능한 '전제조건'과 사회 또는 사회적 행위 '그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의 관찰은 총기살인이라는 사태에서 총기-사람을 보지만 사태의 나머지는 보지 못한다는 관찰의 맹점을 피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총기와 관련된 끝없는 비인간의 연쇄 가운데 어떤 것들만 총기-살인에 순차적으로 결합되는데, 그 결합과 순차를 결정하는 것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게 있고, 관찰자에 의한 세계의 결합은 다른 모든 관찰처럼 우연적이라는 것이다.

-19와 관련된 결정을 [사회]전체에 신속하면서 일관되게 확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런 [사회]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의 중심을 자처하는 어떤 사회적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위험과 리스크와 관련된 해당 체계의 결정과 통보는 다른 체계에게는 환경 속의 수많은 소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체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험 결정 통보를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들(의 의식체계)의 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결정 역시 사회적 체계들과 동일하다. 사람들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결정이다. 사회적 체계, 사회조직, 다른 개인의 의식체계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회적 체계나 사회조직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고 또 흔한 일이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체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 결정은 어느 누구도, 어떤 체계도 대신할 수는 없다. 개개의 의식체계는 각각 고유한 자기준거적 방식으로 외부환경을 관찰하고, 미래의 불확정성에 대응하여 현재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사회적 체계도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형태의 리스크 결정도 할 수 없다. 리스크 결정은 전체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체계들과 개인들(의식체계들)만이 내린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각각의 체계들은 체계고유의 환경과 체계 고유의 미래-현재의 설정을 통해 리스크 결정을 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한 리스크 결정이 부분체계로, 조직의 하위단위로, 그리고 개인에게 옮겨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결정부담은 더욱 커진다(Baecker, 2020). 그러나 체계들이,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리스크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부담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

6. K-방역: 무엇을, 누가, 어떻게 지키는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지만, 유행의 정도와 그에 따른 영향은 국가, 지역, 소득, 인종,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에 따른 그리고/또한 동시에 사회적불평등에 따른 불비례적인 영향은 '자기조절적 시장'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적 대안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와 공공의료의 확장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호소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20년 2월의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¹⁷⁾ 특정 종교나 지역에서의 확산 위기 등을 경과하면서 방역(실패)에 대한 우려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대로 전환되고, 최근에는 'K-방역'의 성공과 '#덕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K-방역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타임》지가 2020년 2월에 보도한 한국의 급증한 확진자 숫자가 한국 사회의 개방성, 투명성, 진단 능력, 자유로운 언론환경, 민주적인 책임 시스템 등과 연관된다는 기사를 한국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¹⁸⁾ 그 이후 K-방역은 몇 차례의 변곡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감염 확산의 억제와 낮은 사망률 등에서 상당히 성공적일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합한 방역당국의 뛰어난 리더십 등으로 방역선진국, '새로운 세계표준'이라고 회자되고 있다.¹⁹⁾

1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76만 1833명이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2까지 서명하였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593>).

18) 《서울신문》(2020.2.26.). "[문소영 칼럼] 역발상과 K방역"

19) K-방역이 성공하였는지, 그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질병의 통제(disease control), 소멸(elimination), 근절(eradication)에 대한 정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질병통제는 발생률이 0인 것이 아니라 수용할 만한 수준이고, 질병소멸은 특정 지리적 영역에서 질병 발생 건수가 제로인 상태, 질병근절은 세계적 수준에서 발생건수가 제로로서 예방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경우이다(Esterman, 2020). 그러나 질병의 통제, 소멸, 근절에 대한 규정은 방역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체계나

K-방역은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K-POP을 배경으로 K-메디컬, K-바이오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K-방역의 성공에 대한 칭송과 수출 논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일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함에도 K-방역의 이름으로 방역과 상관없는 논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소모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²⁰⁾

K-방역은 방역정책, 정책의 효과, 해당 정책과 효과에 대해 사람들이 국가, 사회, 동료 시민들에게 갖는 기대와 관행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K-방역을 잠정적으로 규정해 본다면, 한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체제(regime)로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의 기능체계들, 사회조직들, 그리고 방역관련 관행의 결합체 정도일 것이다. 사실 K-방역은 그것이 보호하거나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지키는지, 누가 지키는지, 무엇을 대가로 지키는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 많은 쟁점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도로 기능분화된 [사회]에서 'K'는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K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본부(장), 사려 깊은 시민, 헌신적인 의료진, 한국 사회 등 여러 가치를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K의 다의성과 불분명함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스스로 K에 헌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헌신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K-방역의 성공을 정부, 조직, 개인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의 특정 부분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 [사회]를 대표한다'라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분화된 [사회]를 전체 사회로 묶어내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이념, 가치, 지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치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하거나 대표되어야 하는 전체 [사회]로서 K

조직들의 대가와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20) 《프레시안》(2020.6.4). “K-방역 삼패인 너무 일러…… 전만전도 안 끝났다”: 3일 의료학계 토론회서 날선 비판 쏟아져…… “지금이 원격의료 도입할 때가”

는 각 체계의 환경(사회의 여러 기능체계들과 사회 밖의 환경)에 존재하는 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관건은 어떤 체계가(누가) 그 체계의 환경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하여 K로 만들었는가이다.

K-방역에서 K의 안쪽, 즉 K에 포함되는 것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한국의 개방성, 투명성, 뛰어난 진단능력, 자유로운 언론환경, 민주적인 책임 시스템, 질병관리본부(장)의 헌신, 배려하는 시민, 헌신적인 의료진, 대통령의 지지율 등일 수 있다. 반면에 공공병원의 심각한 경영난, 간호사들의 임금체불, 서울과 지방의 의료격차, 공공의료법안의 의면, 공공의료 체계의 부실, 개인정보 유출, 우한 교민 수용 거부시위, 특정 종교집단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 시민의식의 부재에 대한 비난 등은 K에 포함되지 않고 뒤로 남겨진다.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요구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기능분화된 사회적 체계들, 사회조직들이 어떻게 각각의 자기준거적 작동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는가, 그런 사회적 체계들의 대응과 작동의 맹점은 무엇인지, 맹점의 대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차가운 관찰이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공에 대한 환호나 칭송 또는 이에 대한 거부나 비난은 사회적 체계들에 대한 관찰을 어렵게 한다. 불가능한 전체로서의 어떤 [사회]에 대한 호출이나 기대는 사회적 체계들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복잡성과 무관하게 과거의 작동방식으로 작동함으로써 새로운 위협과 복잡성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²¹⁾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사회적 체계들의 작동의 적절성 여부는 그것들이 다른 사회적 체계들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변화된 환경에서 수행하는지, 아니면 오래된 체계의 관행(코드, 프로그램 등)에 따라 작동하는

21) 방역 관련 사회체계들과 조직들의 비반향, 부적절한 작동들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몇 가지만 보면, 폭염에 '코로나19 검사' 보건소 직원들의 탈진(허프포스트, 2020.6.10), "코로나19로 막다른 곳 몰린 최빈계층 환자 돌볼 기반"의 위험(경향신문, 2020.6.15), "코로나 2차 유행 '경고음', 최전선 공공의료 긴급진단, 신규확진 100명씩 열흘이면 수도권 병상 꽉 찬다(한겨레, 2020.6.19)," "각국 의료진 '코로나 번아웃'"(경향신문, 2020.6.16) 등이다.

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관련 사회조직들과 사회적 체계들의 비판향성에 대한 관찰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드러난 감염자와 사망자 수, 그리고 의료진들의 보호장구 부족, 과로, 인력난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많은 나라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사회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비판향성이나 부적절한 작동은, 의료현장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체계의 개선, 지역의료체계 개선, 관련 조직에 합당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 의료진과 방역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급여와 사회적 보상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제도적 지원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덕분에’ 캠페인은 상당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것은 마치 경제적 활동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약속을 남발하면서 청년층의 열정을 활용, 착취하는 형태인 ‘열정페이’를 떠올리게 한다(이수진, 2011). ‘#덕분에’ 캠페인은 마치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그대들의 헌신에는 감사하지만 합당한 정책적 개선이나 정당한 지불은 할 수 없다는 ‘#덕분에 페이’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²²⁾

K를 바깥 면에서 보면, K-방역이 막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 존재할 것이다. 사실 K 바깥 면은 K의 환경이지만 K의 불분명함에 따라 그 환경의 불분명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K를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어떤 경계를 통해서 설정한다면 K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가장 근접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킨다? 대한민국을 사회적 체계로서 정치조직이나 정치체제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관찰하면 작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을 생태적으로는, 가령 공기, 자

22) 2020년 6월 12일 간호사들의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행사의 후속으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공공병원과 중환자 병상 등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장기간 노동에 노출됐음에도 이에 관한 정부의 뚜렷한 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프레시안, 2020.6.19. “코로나19 간호사들의 호소 ‘이대로는 안 된다’”)

원, 물질, 에너지 등의 흐름에서 접근하면 환경에 개방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의료체계나 보건의료조직은 그렇게 작동할 수 없다. 환경개방적인 대한민국의 경계를 짓는 것도 경계를 막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K를 한국이라는 국가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집합으로 지칭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는 보다 선명한 보호대상이 설정되지만 이 역시 간단하지가 않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 감염된 사람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는 것 역시 수사적인 표현에 가깝다.²³⁾ 또한 국가와 관련된 사람을 보호하거나 지킨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이나 비국민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아니면서 우리를 기능하게 하는 수많은 비인간 생명체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구성하는 바이러스, 세균 등의 문제가 남는다.²⁴⁾ 그렇다면 K는 존재론적이지 않는 공동체의 삶, 사

23)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a medical certificate clearing)를 요청하는 학교당국과 해당 시점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가 특정한 방식으로 수행한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확인해 줄 수 있기에 그런 이름의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는 의료체계의 상이한 작동과 그로인한 체계들 간의 긴장에 대한 호주의 사례(Ball, 2020)는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것은, 각각의 사회체계가 고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그것들의 작동을 통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코 쉽게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24) 생명과학저널 《셀(Cell)》 2020년 6월 10일자에 따르면, 인체의 장내에는 수백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데, 장 미생물계가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로 얼마나 많은 수로 구성돼 있는가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장내 미생물군(gut microbiome)은 그 특성에 따라 우리가 먹는 약을 화학적으로 변형 혹은 대사시키는 정도와 방법이 달라서 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다르게 미친다. 약은 세 가지 주요 범주, 즉 모든 미생물군에 의해 일관되게 대사되는 약물과, 일부 미생물들에 의해서만 대사되는 약물 그리고 어떤 미생물군에 의해 유도된 대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약물로 구분되고, 미생물계에 속하는 박테리아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돕고 각 세균의 호소 프로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The Science Times (2020. 6. 16.) “장내 미생물군과 궁합 맞는 개인 맞춤 약물 등장? 신약 개발에 적용, 약의 안전과 효능 강화”). 그렇다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과 사람의 생물학적 유기체의 구조적 연결, 생물학적 유기체와 신경체계의 구조적 연결, 마지막으로 신경체계와 의식체계의 구조

〈표 3〉 K-방역의 경계분류와 쟁점

분류	쟁점
영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적으로 폐쇄된 정치체계와 정치조직: K는 구분 가능하나 생태적 위협 없음 • 환경적으로 개방되고 외부환경에 인과적으로 영향 받는 영역: K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지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함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한국내의 비국민, 이주민 등의 문제 • 이미 바이러스, 세균 등과 함께하는 사람을 다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지키기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사회, 사회적 관계를 지키기 •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아서, 생태적 위협이 없음

회적 관계, 제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제도들은 살아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지만,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기에 코로나-19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위협받지 않기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K-방역은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라고 다시금 전체로서의 사회를 지킨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 보고 있듯이 그런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인력,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공무원들,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감염확산 억제와 방역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방역관련 행동 하나 하나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도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태의 해결도 모색할 수 없다. 다시 우리는 개별 사람들의 땀과 움직임이 아니라 사회적 체계들을 관찰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회조직이나 사회적 체계들이 K-방역의 이름으로 무엇을 대가로,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적 체계들의 방역 작동은 아마도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의학적, 과학적 조치들(검사, 치료, 격리 등), 감염 공간의 생물리적 방역처치, 방역과 연관된 법적, 정책적, 사회적 조치들(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예방수칙, 동선 추적, 집합 금지, 휴교, 폐업 등)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방역활동은 일련의 과학적·사회적 조치의 허용, 제

적 연결 등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답해져야 한다.

한, 금지 등에 대한 결정의 산물이다. 또한 관련된 자원, 인력, 물질적 자원, 사회적 지원 등의 배분의 결정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치체계, 경제체계, 법체계, 과학체계 등의 사회적 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작동은 언제나 우연에 맡겨져 있다. 해당 체계나 조직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는 순전히 체계의 내부 준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정은 다시금 체계 스스로가 설정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별하는 것의 형태를 띤다는 의미에서 우연에 맡겨져 있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에서 모든 체계를 관찰하는 상위의 사회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계적 분화가 이루어진 조직에서 해당 조직의 결정은 위에서 결정될 수 있으나, 해당 조직의 결정이 다른 사회조직이나 다른 사회적 체계에 미치는 효과는 그 결정을 관찰하는 사회적 체계들 내부에 존재한다.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정치조직, 경제조직 등 어느 사회조직에서도 최종적 관찰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K-방역을 호명하거나 K-방역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사회적 체계들이 담당하는 분화된 기능들의 왜곡이나 왜해를 야기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복잡성을 처리하기 위해 기능분화체계들로 진화한 현재 형태의 진화를 왜해시킬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에 신속하고 일반적 결정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어긋난다. 사람들은 위기의 시기에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들이 보다 팽팽하게 연결되어, 한 체계의 결정이 다른 체계들에도 신속하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방향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팽팽한 연결(tight coupling)은 실제로는 체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한다. 모든 외부환경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체계는 체계로서의 경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체계 고유의 복잡성을 발전시키지도 못한다.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체계들과 사람들의 의식체계는 외부환경에 일대일, 점대점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체계는 외부환경에 선택적으로 무관심하고 외부환경의 소음과 교란을 단축·환원할 수 있기에 고유의 작동과 고유의 복잡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능체계들과 조직들은 느슨한 형태로, 어떤 체계의 결정이나 왜해가 다른 체계의 왜해나 동일한 문제에 처하지 않는 방식, 느슨한 연결(loose

coupling)의 형태로 움직여야 한다.²⁵⁾ 비상사태이니 모든 체계가 긴급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럼에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7. 그래서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 [사회]를 관찰하는 것은 코로나-19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일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환경을 존재론적으로 사회와 구분되어 저기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가 스스로 분화독립하면서 만들어내는 작동적 차이로 보아야 한다. 기능분화된 사회체계들은 고유의 기능영역에서 다른 기능이 다른 곳에서 수행된다는 것에 의존하면서 상호대체 가능성을 포기한다. 기능분화된 사회적 체계들은 각각의 [사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 밖의 환경에서 고유한 환경을 창출하고, 고유의 작동을 수행하기에, 사회적 체계들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된 전체로서의 K-방역의 K와 같은 사회나 그런 사회의 환경은 불가능하다. 기능체계들은 각각의 주도적인 차이에 의해서 구분되고, 이 차이로 인해서 체계들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동시에 고양된다. 체계들은 다른 체계들과의 통합의 기반이 없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사태들에 대처하는 복수의 기능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작동의 변화와 그 맹점을 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결정(책임) 역시 회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체계들, 조직들, 상호작용들 모두를 관통하는 [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초월적 위치는 존재하지 않기에 각각의 체계별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

25) 느슨한, 팽팽한 연결은 루만(2014b: 457) 참조

이후에 대한 논의는 누가 관찰하는가, 관찰되는 체계가 무엇인가, 사회적 체계들과 사회적 조직들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복합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찰로 바꾸었을 때에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의 기능체계들과 사회조직들 각각의 작동과 그 맹점을 관찰하는 것만이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대는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도, 모두의 사회 저편에 있는 '환경'도,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규범적 이상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정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 (관찰자)는 다수의 체계를 종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고,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그(관찰자)의 몫이다. 그러나 사회적 체계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이상이나 진리는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각 기능체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의식체계는 공유의 합리성만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것들을 환경으로 취급한다. 부분체계들의 합리성을 합하여 전체 [사회]의 합리성을 만들 수 없고, 부분체계들의 환경을 합쳐서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각의 체계가 환경과의 차이에 의해서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고, 그 차이가 다시 체계로 재진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체계들, 사회적 조직들, 다른 사람(의 의식체계들)의 관찰을 관찰함으로써 각 체계의 맹점을 관찰할 수 있다. 사회적 체계들과 의식체계들에 대한 이차관찰의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변화하는 사회적 체계들과 [사회]는 그것과 함께 진화하는 사람들(의식체계들)의 변화를 자극할 뿐이다.

원고접수일: 2020.07.09

심사완료일: 2020.08.05

게재확정일: 2020.08.07

최종원고접수일: 2020.08.10

참고문헌

- 기든스, 앤소니 & 필립 서튼. 2018.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정성호 옮김. 『현대사회학』 8권. 을유문화사.
- 김광기. 2008.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이방인」. 《사회이론》, 33호. 281~316쪽.
- 김환석외. 2020.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 감성 노진철, 2014. 「불확실성 시대의 위협들과 정치에 대한 요구 증대: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와이론》, 25호. 7-39쪽.
- 루만, 니클라스. 2014a. 서영조옮김. 『생태적 커뮤니케이션』. 에코리브르.
- 루만, 니클라스. 2014b. 윤재왕역. 『체계이론입문』. 새물결
- 루만, 니클라스. 이철 옮김. 2015. 『사회이론입문』. 이론출판
- 루만, 니클라스. 2018. 서영조옮김. 『사회의 정치』 이론출판.
- 마굴리스, 린·도리언 세이건. 2018. 김영 옮김. 『생명이란 무엇인가』. 리수.
- 마뚜라나, 움베르토·프란시스코 바렐라. 2007. 최호영 옮김. 『삶의 나무: 인간 인지능력의 생물학적 뿌리』. 갈무리.
- 박순열. 2019. 「생태시티즌십: 생명과 자유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민의 모색」. 《환경사회학 연구 ECO》, 23-2. 67~98쪽.
- 베르크하우스, 마르고트. 2012. 이철 옮김. 『쉽게 읽는 루만』. 한울아카데미.
- 이수진. 2011. 「강요된 열정, 불안한 젊음. 한윤형 외 저,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웅진지식하우스, 2011.5)」。 《플랫폼》. 2011년 7-8월호(통권 28호). 66~69쪽.
- 이철. 2017.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적 세계사회 분석 - 소통으로서의 사회적인 것과 소통의 총체로서의 사회」. 《사회와 이론》, 통권 제30집, 171~210쪽.
- 이철. 2020. 「한국사회 분석을 위한 ‘체계/환경-차이’ 이론의 함의 - 계층적 분화의 사회질서 원칙과 기능적 분화의 사회질서 원칙의 경합데데」. 《사회와이론》, 통권 제36집, 93~121쪽.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 해밀턴, 클라이브. 2018. 장서진 옮김.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서 선 인간과 지구시스템』. 이상북스.
- 헬가그립-하겔슈탕에. 이철 옮김. 2016. 『니클라스 루만-인식론적 입문』. 이론출판.
- Esterman, Adrian. (2020. 5). “We may well be able to eliminate coronavirus, but we’ll probably never eradicate it. Here’s the difference”,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global>)
- Baecker, Dirk(2020.5). ”Corona XVII: Die Individualisierung des Risikos. <https://kure.hypotheses.org/934>

Ball, Lauren(2020.6). “Employers, schools, take note. Coronavirus ‘clearance certificates’ are a waste of everybody’s time”. *The conversation*(<https://theconversation.com/global>)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 Coronavirus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Worldometer 홈페이지: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Abstract

**How Does a Society Cope with COVID-19 Pandemic?
Observing the Possibility of Society and Changes of Social Systems**

Soonyawl Park

This article explores how a society copes with ecological risk such as COVID-19 pandemic, using N. Luhmann's system theory. Most of social sciences approaches to COVID-19 pandemic assume the society composed of people and their relations, and the society-environment schema where environment is ontologically distinct from a society. This schema is not valid any more for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is an obstacle for us to cope with ecological risks. In this article, society is operatively distinct from its environment, and auto-poietic communication system that reproduces self-referentially itself. Then ecological risks such as COVID-19 pandemic can only be addressed by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al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not the entire society. The empirical analysis of risk decisions of social systems and 'K-Prevent Epidemics', a Korean regime of COVID-19 prevention epidemics reveals that risk decisions and societal response made in the name of the society are impossible or dangerous. Because society could response risk and danger only by organizationally closed social systems. The best response to ecological danger or risk is to observe how functionally differential social systems operate and what their blind spots are.

Keywords: System theory, Social System, Communication,
Society-environment, COVID-19, Risk, K-Prevent Epidemics,
N. Luhmann